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19:00 (청 년)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알 림

- 제58주년 본당의 날(10월 10일, 일요일) 기념미사 봉헌 후 기념 떡 증정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재개 지침
 - 재개일 : 8월 9일 ~ 당분간
 - 참례 가능 신자 : 본당 신자, 공간별 10%
 - 미사 후 성체 분배 없습니다.
- 유아 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군인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10월 04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일로 신부님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사목국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무료)

-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 장소 :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 727-2139 (월~금 10시~18시)
 - 전화 상담 : 727-2137 (월~금 10시~17시)

●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0/03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0/10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09/01~09/30)

구 역 반	성 명	세 례 명	이전 본당
22구역 03반	권오주	사무엘라	서울/세검정
22구역 03반	김잔디	세레나	청주/강서동
구역외	윤옥순	베로니카	서울/독산1동

☞ 베이사이드 성모신심(일명 '미카엘회') 주의!!

- 그릇된 성모신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갈색성모스카폴라, 묵주, 기적의 패, 유인물(지구의 멸망, 죽음과 심판, 인류에게 떨어질 크나큰 고통 등의 내용) 주의!
- 이 그릇된 신심이 시작된 미국 뉴욕 브루클린 교구장은 2014년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를 거쳐 "베이사이드 운동"은 교회에 대한 반대를 통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면에서 계시의 본질적인 측면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배포하는 스카폴라를 착용하거나 유인물을 읽지 말라고 권유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10/1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9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9월22일 ~ 09월28일)

• 교 무 금		6,445,000원
• 주일헌금		3,450,000원
•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1,039,000원
• 본당의 날 기념 떡 후원(이미자)	...	1,000.000원
• 감사헌금	김희영 100만원 설광옥 5만원 정영자 1만원	심점순 5만원 박영순 5만원 이리호 5만원 이재선 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독 서	
10/03	유명진	장익근	권태희
10/10	황원선	최웅조	정홍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0/03	박형순	이운영	박용환	김인기	장인홍
10/10	오광운	장인홍	이계명	손상민	이운영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86. 때때로 저는 그러한 동기 부여가 있음에도 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노예 제도를 강력히 단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슬퍼합니다. 오늘날 신학과 영성의 발전으로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국수주의, 인종 혐오적 태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멸시, 심지어 학대까지도 지지하는 데에 자신의 신앙이 힘을 북돋워 준다거나 적어도 그럴 권한을 준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앙과 그에 힘입은 인도주의는 그러한 경향들과 맞서 비판 의식을 생생히 유지시켜 나가며, 그러한 경향들이 교묘히 파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재빨리 대응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사회적 의미, 영성의 형제적 차원, 모든 사람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에 대한 확신, 모든 이를 사랑하고 환대하게 하는 동기를 교리 교육과 설교에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장

열린 세상을 상상하고 이룩하기

87.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지 않으면” 살아가고 발전하며 충만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나 자신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가 없다면, 사랑할 구체적인 얼굴들이 없다면 아무도 삶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유대, 친교, 형제애가 있는 곳에 삶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관계와 충실한 유대 위에 세워진 삶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반면에 자족하며 섬처럼 살아가려는 곳에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들 안에서는 죽음이 지배합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

88.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향할 때에 사람은 모든 이의 마음속 깊이 유대감을 만들고 존재의 폭을 넓혀 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 안에서 존재의 성장을 찾는 일종의 ‘탈아’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은 언제인가 한 번은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